

불교미술책 양 팽창 질 제자리

“선종의 미술은 주객합일체(主客合一體)로서 미술이 곧 자내증(自內證) 그 자체이며 자내증이 곧 미술 그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기(禪機)에 무르익은 회화는 제일로 모든 감각적인 것의 극한위에 우선 선다.” 한국 미술사학의 비조인 고유섭선생(1905~1944)의 ‘불교미술에 대하여’란 글에 나오는 말이다.

1948년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미술서인 고유섭선생의 ‘불교미술에 대하여’의 연구(을유문화사)가 나온 지 50년. 최근들어 불교미술 연구서, 불화

불화도록등 을 10여종 ‘서점에’ 불교정신 녹인 개론서 태부족

도록 등 불교미술 관련 도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올해 출간된 것만 해도 불교미술사를 다룬 <한국불교미술사>(김영주·술) <인도미술사>(벤자민 로울랜드·예경) <한국미술사 자료집 4, 5권>(진홍섭·일지사) 등과 불교미술 연구서로 <중국석굴과 문화에의 불화>(은옥성·경인문화사) <지방

시랑도 연구>(김정희·일지사) <달마도의 세계>(선희의 세계) <최순택·학문사>, 도록으로 <한국의 불화>(성보문화재단·원·불지사) <화엄연구>(김경남·역·법음사) <동화>(로드리 워드필드·예경) 등 10여종 이상이다. 이밖에 일지사의 <서역불교조각>, 시공사의 <고려시대의 불화>도 7월, 9월에 각각 출간될 예정이다.

최근 몇년간의 불교미술 출판 활성화로 현재까지 나온 관련도서는 80여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불상 탕화 석탑 사찰 등 분야별 전문서는 많지만 불교미술 전반을 다룬 개론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개론서는 황수영교수의 <한국의 불교미술>(역경원), 홍순식교수의 <한국의 불교미술>(대원정사), 문명대교수의 <불교미술개론>(역경원), 디트리히 작켈의 <불교미술>(열화당) 등에 불과하다. 둘



◇80년대 후반부터 불교미술서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째는 기법·양식적인 측면에 치우쳐 미학·역사 등 불교미술의 정신을 함께 다룬 연구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양미술의 형식론을 따르다 보니 우리 불교미술의 정신적인 면이 소홀해 지고, 이론적인 주제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풍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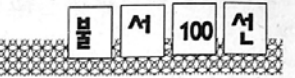
이에 대해 홍순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우현 고유섭 선생처럼 미학과 미술사를 균형있게 다룬 불교미술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불교미술서가 한차원 높은 질적 도

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우리 체질에 맞는 연구서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아니었으면 불교의 명맥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이순구씨(국사편찬위원회 편사원 구사)는 최근 발간된 ‘조선조 여인들 신앙 불교명맥 이었다’ 이순구씨 ‘역사학보’ 기고 여성들이 의존했던 믿음의 내용과 사회적 지위 및 의식구조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즉 조선조가 와서 불교가 비록 통치이념으로는 퇴색했지만 종교성은 꾸준히 유지되면서 일반민중 특히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여성들의 신앙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우)

명사추천



종교란 무엇인가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때는 미국 유학시절이었던 1983~84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에서는 불교 하면 당원 일본불교인자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서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출중한 이론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미국에서 <종교와 무(Religion and Nothingness)>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었고 번역은 브래트(Bragt) 박사가 중심이 되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이 책이 소개되자 나의 은사였던 리처드 디마르티노 교수는 불교에 관심있는 교수나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자고 제의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

바로 니시타니가 중심이 된 교토(京都)학파이다. 교토학파는 불교의 입장에서 서서 불교철학을 더 보편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이나 기독교와의 비교를 통해 불교를 재해석하면서 그 지평을 넓히고 넓혀가고 있는 대단히 창조적인 학파이다. 교토학파의 학문적 결정체가 바로 이 책이다.

내용을 보면 불교의 무(無)나 공(空)의 입장에 서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국제한국학회장)

존경하는 은사님이 소개한 책과 처음에는 하나의 성명(聖典)처럼 느껴졌다. 디마르티노 교수에 의하면 이 책의 저자인 니시타니 게이치는 동서양의 언어부터 철학까지 모두

대한 진단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처방안까지 제시해 이 땅의 불교가 가야 할 바를 밝히고 있다. (경서원 1만원)

동서양 종교철학의 만남 주선 호사상 기독교와 비교 재해석

쉽럽했고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하이데거와도 동문수학한 이시대 최고의 철학자라는 것이다. 나는 사실 일본에 그런 훌륭한 철학자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다. 나를 포함한 한국의 불교인들은 일본불교 하면 ‘교학은 조금 있지만 신앙은 없다’라고 하면서 ‘인도부터 발달해 온 불교의 열매는 단연코 한국불교’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교의 중추국은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

이런 일본불교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그것도 선불교의 입장에서 서서 서양철학과 종교와의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서 동서양 종교철학의 만남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면서도 불교의 취약점이자 기독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와 시간에 대한 장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불교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고 역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한 기독교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불교의 공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도 불교의 공이나 무상(無常)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고 좋은가를 심도있게 비교하고 있다.

또한 종교에 대해서는 인간실존의 심연에 있는 절대 허무를 극복하고 공적(空的)인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도 교토학파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관한 한 세계의 메카처럼 되어 있다. 이점에서 서로 배타적이기만 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불교는 배울 점이 많다고 이 책과 사상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학술서 출판 보조금 20억원 예산편성

문체부, 내년부터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7월1일)으로 인한 국내 출판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술도서출판보조금을 새해 예산에 반영,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도서출판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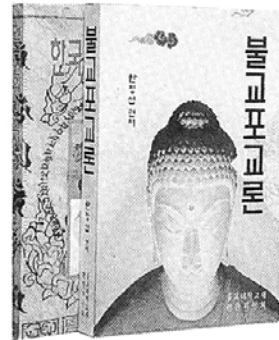
안으로 학술도서출판보조금 제도를 신설, 약 2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내년도 문체부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학술도서를 발간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출판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또 공공도서관의 학술도서 구입과 배포범위를 늘리는 계획도 마련중이다.

‘불교포교론’ ‘... 민속신앙’

한정섭법사 2권 동시출간

한국불교교회위원장 한정섭법사가 <불교포교론> <한국의 민속신앙>(불교대학교재판취외)을 동시에 펴냈다. <불교포교론>은 92년 스님들의 특별교육을 위해 <불교포교 방법과 실제>란 제목으로 출판, 불교통신대학 고등과 교재로 사용한 책을 정토불교대학의 강의경험을 바

탕으로 일선포교사들의 참고서가 되게 교정 증보한 포교 안내서. 포교사의 자격, 자질형성, 의무와 복역, 포교방법 등 다양한 본제와 방식을 응용하고 역대 포교사들의 포교불사를 산 경험으로 실려 구도 전법의 의식을 일목요연하게 인식케 한다. <한국의 민속신앙>은 한국인의 놀이문화, 통과의례, 주술신앙, 부적, 귀신 등 갖가지 민속신앙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했다. (재)



출판 화제

‘불교포교론’ ‘... 민속신앙’ 한정섭법사 2권 동시출간

한국불교교회위원장 한정섭법사가 <불교포교론> <한국의 민속신앙>(불교대학교재판취외)을 동시에 펴냈다. <불교포교론>은 92년 스님들의 특별교육을 위해 <불교포교 방법과 실제>란 제목으로 출판, 불교통신대학 고등과 교재로 사용한 책을 정토불교대학의 강의경험을 바

새로나온 책...

▲수행궁극 과보따라 천상가고 극락기네(묘연 저)=전남 정성 영취산 묘현사에 가면 30여년간 <법화경>을 공부해 온 노스님이 있다. 한겨울에도 양말을 신는 법이 없어 ‘뱀발스님’으로 알려진 묘연스님은 근기가 낮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묘법연화경> 공부가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간경도감 5천원> ▲풍수로 보는 한국사찰 1, 2(임학석)=청산문화연구원 임학석원장이 전국 유명사찰 80사를 풍수적 관점으로 답사한 기록. 자연의 생기가 충만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곳을 명당(明堂)이라 하는데, 이런 풍수론은 생활의 지혜로 우리 민족의 삶에 녹아 있다. <동화사 각권민3천원> ▲관치탄트라(관디트 비쉬누 사르마 저)=‘다섯 토막의 지혜’란 뜻을 담고 있는 <관치탄트라>는 기원전 2백년경에 성립했으며 그후 오랜 세월동안 집시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돼, 지금까지 50여개 국에 번역된

우화집. 인간을 이해하는 법, 진실한 벗을 찾는 법, 기지와 지혜로 난관을 이기는 법 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태일 7천원> ▲오대산(박용수 글·손재식 사진)=신라 자장율사에 의해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산으로 개산된 불교성지로서의 오대산의 절경과 산세, 자연자원 등을 소개했다. 상원사와 월정사, 5대 암자 등

오대산의 유적과 문화재 등이 소개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 제183권.<대원사 3천5백원>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조 피셔 저·손민규 역)=지혜와 자비의 계발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이룬 대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기에 환생의 과정은 더욱 필수적이다. 영국 언론인 조 피셔가 환생의 체험 사례를 모은 논픽션. <태일 6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난 날은 적막하다	법정	샘터
2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용	웅화
3	기도	일타	효원
4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5	능엄경 주해	문허	동국역경원
6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정승석	대원정사
7	예뻐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8	부처님의 유언	공과태	대일
9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10	과학과 불교	김용정	석림

구입문의:(02)737-0695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문/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이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범구경 1 2

오소 라즈니쉬 경의 / 손민규 옮김 <범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경의 / 손민규 옮김 2천5백 년 전 붓다가 들었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짜든 우리에게 생광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강박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